

전남도, 도내 대학 글로벌대학30 본지정 행정력 집중

●전남권2곳 예비지정

목포대, 해상풍력·관광 등 특성화 계획 단독 제출 호평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공공형 사립대 모델

전남지역에서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각각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30으로 예비지정된 가운데 전남도가 본지정 평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총 65건의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이날 전국

20개 대학을 예비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선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에서 목포대는 해상풍력, 해양관광, 조선산업 등을 핵심으로 한 특성화 계획을,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지역

과 함께 하는 공공형 사립대학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께 예비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순천제일대학교는 정주형 외국인 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연계 혁신계획을 제시하며 전문대로서의 자체 혁신 역량을 보여줬으나 예비 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예비지정은 동부권에 위치한 순천대와 서·중부권에 위치한 목포대·동신대 연합이 지역 균형을 이뤄 지역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예비지정 대학은 6월까지 혁신기획에 대한 세

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오는 7월께 10개 안팎의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본지정 평가를 통해 목포대와 동신대 연합이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대학 전담반을 즉시 구성해 도, 대학, 지역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담당 실·국과 출연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주력산업 연계 및 협업 체계 등

이 포함된 실행계획서를 공동 작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관련 부처에 지역 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 건의 및 지자체 차원의 글로벌대학 육성 의지 표명 등 본지정을 위한 측면 지원도 발빠르게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글로벌대학으로 도내 대학이 신규 지정되는 것은 200만 전남도민의 열원이 담긴 중요 사안”이라며 “이번에 예비지정된 목포대와 동신대 연합이 자·산·학 거점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글로벌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노력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김지사,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면담...미래농생명 발전전략 등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농축산업에 첨단 농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미래산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및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공동 선도시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공모사업 선정 및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확대 지원 등 2025년 중점 국고사업 예산 반영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미래 농생명 발전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둔 전남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축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안·함평 일원에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용산-여수 전라선 30분 이상 단축해야”

전남도의회·지역 상의 성명...예타 면제 추진 촉구

정부의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 노선 조정과 관련, 소요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현재 2시간44분(최단 시간 기준)에서 2시간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을 갖고 있다”며 “소요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전라선은 2021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고속철도를 개통했으나 익산-여수 구간은 기존 노선을 개선하지 못했다.

용산에서 여수까지 최장 시간 3시간15분, 최단 시간 2시간44분 소요돼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

정영균(순천1) 도의원은 “순천-여수권의 연간 관광객이 급증하고 광양반권 산업단지도 급성장하고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속 300㎞급 고속철도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내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와 여수·광양항의 원활한 산업 활동 지원은 물론,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용산에서 여수까지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조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아동 관련 정책 제안·다양한 해법 모색

‘아동친화도시 조성’ 토론회...학교 체육 확대 등 제시

광주시는 16일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과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8개 모둠별로 3시간 반 동안 아동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광주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8개 사업을 투표로 선정했다.

8개 사업은 ▲학교 내 체육 프로그램 확대 ▲정기 조기교육 실시·확대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방지(앱에서 면허등록 후 이용) ▲놀이·교육 보조금 지원(활동비 지원 등) ▲폭 넓은 진로 체험 ▲가족대상 놀이터 건립·정비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 안전버스 운행 등이다.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광주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정책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오영길 여성가족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올해 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박성강 기자

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워크숍

전남도는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열어 으뜸마을 대표 등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2개 시·군과 읍·면·동 담당자, 으뜸마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전문 강의를 듣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전남도의 역점 시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꾸기 특화사업이다. 올해 2천885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민은 쓰레기로 가득찼던 공터에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책자를 제작해 마을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등 주민자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양서원 기자

제 17 회 광주 연꽃 문화제

주제: 꽃, 나눔, 약속

2024.4.27 (토) 오전 09~15시 • 상무시민공원 야외무대

문의 062-374-1311 FAX 062-374-1319 E-mail dongryun3516@naver.com

시간	내용	세부내용
09:00~11:30	접수	글짓기, 그리기(도화지, 원고지 현장배분), 장기자랑 접수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삼귀의, 인사말씀, 행사일정 소개, 심사기준 및 시제발표
10:30~12:30	작품활동	작품 제출 마감시간 엄수
11:30~13:00	체험활동	부스체험, 전래놀이
12:00~13:00	점심시간	점심, 간식 제공
13:00~14:00	놀이한마당	공연 및 장기자랑, 작품심사
14:00~15:00	시상식	수상자발표 및 시상, 정리

장기자랑 10팀 사전접수 모든 참가자 푸짐한 상품

대상 유치부~초등학생 부문 글짓기 / 그리기

주최: 여민동행동원, 봉곡어린이청소년연락처 주관: 여민동행동원광주지부, 여민동행동원어린이청소년연락처광주지부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표: 박영사, 송광사, 화정사, 안양사,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나눔나루, 광주관광재단, 광주매일신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파라다이스청소년협회, 대동문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어린이청소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광주전남지역연, 동경대학교, 동신대학교, 원고항기독교계광주지부, 자비선행회, 정광학원, 조선대학교, 한국온건기독교사물자연연회광주지역회, 경진시명사, 개신사, 고충영양사, 곡성연광사, 곡성천태암, 권운사, 광덕사, 광복사, 광상사, 나주늬아원, 나주불교회, 나주성향사, 달마사, 달양금강사, 달양오곡사, 대원정사, 동원사, 마하사, 만경사, 만덕사, 목포민사, 무량선원, 문빈정사, 미륵사, 법원사, 법림사, 보성불광사, 복암사, 봉덕사, 보은사, 삼장선원(법주도서관), 상거사, 세심정사, 소원정사, 송광사전지암, 선광사, 약사사, 연화암사사, 원도선홍사, 원각사, 연화사, 영광불갑사, 원도수후사, 원효사, 장성미륵암, 장성원효사, 장흥대원사, 정안사, 정인암, 중심사, 지장암, 천통사, 화엄사및고을포교당, 한마음선원, 향림사, 해탈암